

덴조야마 공원

덴조야마 공원은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후지 5 호 구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가와구치코 호수 동쪽, 해발 1,104m 의 덴조야마 산 정상 근처에 있는 이 공원에는 3 층짜리 전망대가 있어 남쪽의 후지산을 포함한 360 도의 파노라마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산기슭에 하이킹 코스도 있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후지산 파노라마 로프웨이(케이블카)를 탑니다. 이 케이블카는 삼림으로 뒤덮힌 경사면 위를 올라가는데 해발 1,075m 에 자리한 공원까지 219m 의 높이차를 불과 3 분 만에 오를 수 있습니다.

‘딱딱산’

이 케이블카와 공원의 테마는 성격 나쁜 너구리에게 나쁜 짓을 당한 농부를 토끼가 구해준다는 ‘카치카치야마’라는 일본의 민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반쯤에 토끼는 너구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 부싯돌과 강철을 이용합니다. 너구리가 불타는 장작에서 들려오는 카치카치(딱딱) 소리를 알아챘을 때 토끼는 ‘여기가 카치카치야마(딱딱산)라서 카치카치 소리가 나는 거야’라고 시치미를 뻗습니다. 너구리는 심한 화상을 입은 후에야 비로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다자이 오사무(1909~1948)가 현대식으로 다시 쓴 ‘카치카치야마’에서는 이야기의 무대가 구체적으로 덴조야마 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너구리와 토끼의 컬러풀한 동상이나 기념품과 가벼운 식사를 판매하는 가게의 ‘다누키자야 (너구리 찻집)’라는 이름 등 이 민화에 바탕을 둔 동상, 그리고 민화와 관련된 물건이 공원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옆에는 우사기(토끼) 신사라는 실제 신사까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후지산을 배경으로 하트 모양 틀에 걸린 덴조의 종(천상의 종)이나 작은 도자기 접시를 던져서 로프의 고리를 통과시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가와라케나게(그릇 던지기)라는 이름의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또한 지면에서 높이 7m 에 있는 ‘다케다 신겐의 전국 광장, 절경 망루’에 올라서면 시야에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후지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

덴조야마 공원에서는 일년 내내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후지산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요가 강사가 진행하는 새벽 요가 교실이 열립니다. 겨울에는 불꽃놀이 이벤트나 전망 데크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난방 기구인 고타쓰에

들어가는 이벤트 등이 개최됩니다. 고타쓰 이벤트에서는 마치 자신의 집 거실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듯이 따뜻한 고타쓰에 들어가 꿀을 먹으면서 후지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의 경치는 여름의 풍부한 녹음부터 가을의 노란색 또는 붉은색으로 물든 나무들의 색, 그리고 겨울의 온통 하얀 눈 등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돌아올 때는 숲 속을 하이킹하며 내려옵니다. 케이블카의 꼭대기역에서 도보 10 분이면 덴조야마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지만 거기서 다시 북동쪽으로 약 3 시간 코스의 미쓰토게야마 산까지 본격적인 하이킹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